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7> 이치로는 단숨에 깨달지만

신해수증(信解修證)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먼저 신(信)은 부처님의 법을 즐겨이 믿는 것이고, 해(解)는 부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수(修)는 그 법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 수행하는 것이고, 증(證)은 이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선가귀감> 36장에서 "24장부터 이 장까지는 신해(信解)를 말했다"고 하였다. 신해수증(信解修證)에서 신해(信解) 부분을 말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모든 것을 깨우쳤다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신해 그 자리에서 모든 수행이 끝나 공부할 다 마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박에 들고 깨우치는 것을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한다.

그러나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았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깨쳐나가야 한다. 이를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점차 닦아간다고 하여 돈오점수(頓悟漸修)라고 한다.

같은 돈오이지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말하는 돈오는 그 뜻이 확연히 다르다. 돈오돈수에서 돈오는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아(信解-頓悟)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修證-頓修) 더 이상 공부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돈오점수라 할 때의 돈오는 선지식 도움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안다 하지만(信解-解悟) 확실한 자기 체험이 없기에 수행을 통해 깨쳐나가는 과정이(修證-漸修) 필요하다. 이를 돈오돈수의 돈오와 구분해 해오(解悟)라 부르기도 한다. <선가귀감> 37장부터는 깨달음을 얻기 위

해서는 수행을 통하여 깨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수증(修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理雖頓悟 事非頓除 이치로는 단숨에 깨달을지라도 현상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치는 근본도리로서 천진한 부처님의 세상이고 현상은 연기법으로서 중생계의 모습이다. 서산 스님은 <원각경>에 나오는 문수보살과(신해) 보현보살에(수증) 비유하여 이 단락을 설명한다.

부처님 법 공부에 있어 믿고 이해하고 그 법을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文殊達天真 普賢明緣起 解似電光 行同窮子 此下論修證

문수보살은 본디 모습이었던 천진한 부처님 세상을 지혜로서 통달했고 보현보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연기법을 보살행으로써 밝혔다. 중하근기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변개불 같아 보여도, 그 살아가는 모습은 가난한 집 아들과 같으므로 부처님 아들이 되게 하고자 여기서부터 수증(修證)을 말한다.

문수를 뜻으로 풀이하면 '묘수(妙首)'라고 한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므로 묘(妙)라 하고, 그 지혜는 모든 지혜 가운데 으뜸이기에 수(首)라고 한 것이다. 이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온갖 행을 만들어가는 바탕으로서 오묘한 작용을 해

내기 때문이다. 만일 보살행에 지혜가 밀반 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삿된 법이 되고 필경에 마구니의 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보살행 가운데에는 지혜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수행을 일으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널리 베푸는 것을 '보(普)'라 하고 큰 덕을 '현(賢)'이라고 하니, 보현보살은 큰 자비로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이익을 주며 온갖 보살행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해 가는 보살이다. <원각경> 문수보살장에서는 모든 중생이 청정한 원각(圓覺)을 깨달도록 '신해(信解)'를 드러내었고, 보현보살장에서는 이 신해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수증(修證)'을 드러낸 것이다.

한하득통 스님은 보현보살장을 해설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과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발은 서로 돕는다.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밝은 불빛이 타오를 수 없고, 발이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몇 발자국밖에 걸을 수가 없다. 불은 기름을 얻어야 더욱 밝아져서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발은 눈이 있음으로써 더 먼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기름의 역할과 같고, 수행을 하는 데 깨달음에 대한 신해(信解)는 먼 길을 가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눈의 역할과도 같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면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해는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세상을 신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증(修證)은 반드시 몇 걸음밖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아야 할 것이고, 이미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았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 이 자리를 깨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하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正解已成須起行 普賢所以問其方 難行佛到無所難 不可離者是眞常. 바른 신해 알고 난 뒤 수행 실천해야 하니 보현보살 묻는 이유 그 방편이 알고 싶네. 희를 떨쳐 떨쳐 희가 남김없이 사라지면 희 사라진 이 자리가 부처님의 극락세계.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유명무실(有名無實)

한시라도 못 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담배. 하지만 단 번에 끊고 나니, 담배 없이 살아도 살아지더군요. 자기 전, 담배 한 대의 유혹도 자고 나니 연기처럼 사라지더군요. 금연에 성공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금연! 별 거 아니더군. 흡연욕은 있되, 그 실체는 없더군. 피고 싶다는 마음이 본래부터 없더라고. 진작에 유명무실(有名無實)의 이치를 깨쳐야 했네..."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모든 물체는, 그 이름은 있되 인연이 다 되면 그 이름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수레가 있다고 합시다. 이 수레는 지금 만들어놓고 이름하여 수레라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부서지고 망가지면 수레라는 이름조차 없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연화합(因緣和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름은 있되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가 참으로 어려서입니다. 항상 나타나 이름과 현상에만 집착해 그 본질을 못 보니 말입니다. 유명무실의 이치가 담긴 금연도 못하면서 허무하루 담배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8장 그 동안의 <금강경> 내용 정리

잠깐 숨을 돌리고 그동안의 <금강경>을 다시 정리해 보자. 1장은 법석(法席)을 폈다. 붓다의 탁발과 공양으로 법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소식을 코앞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5장까지의 부연설명이 이어졌다. (제 2-43장)

설법은 충격적이다. 불교에 일구워진 지혜는 사람들에게 <금강경>은 "여래는 없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그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없을 리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뿐이다." 실제 <금강경>은 "여래가 여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뿐, 존재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여래는 있다. 다만 그는 이런 저런 '몸'으로 오지 않을 뿐이다(不可以身相得見如來). 원효가 관음을 친견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낙산사로 길을 떠난 것도 어린 마음인데, 그는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생리대를 뺀 더러운 성수(聖水)를 버리고 '깨끗해 보이는 새 물'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다.

여래는 어디 있는가
그림, 진정 여래는 어디 있는가. 육안으

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눈에 비치는 사물은 우리 욕망의 투영이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무학대사의 만고 법문처럼, "폐지에는 폐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여래가 되어야 한다는 청천벽력이 요구된다. 그때 보이는 여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야부는 이렇게 귀띔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런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거나, '지금 여기' 너머를 추구(求)하는 것은 허망한 시도라네. 그렇다고 여래는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 보라, 저기 뚜렷하고, 좁좁해서 한 치 틈도 없는 것을... 차가운 빛 하나가 태허(太虛)를 찌그러 태워버렸네." 山是山, 水是水, 佛在甚麼處. 有相有求俱是妄, 無形無見隨偏枯. 堂堂密密何曾問, 一道寒光燦太虛.

중생의 눈을 한 채로 여래를 보겠다고 발돋움 하지 말라. 그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필칭 여래에게 32상 80종호가 있다 하나, 그 표징들은 중생들의 눈에 다만 그릇된 인상을 줄 뿐이다. 32상 80종호는 여래의 표징이 아니라 마군의 표징

이다. 우리가 여래의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다. 여래는 바로 그 이미지와 기대를 벗어날 때,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다. "여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너는 여래와 대면할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그럼 대체 여래는 어디 있는가.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 있다. 하찮은 들플, 내가 내다 버린 쓰레기, 그 속에 여래가 있다. 어느 선승은 이를 "풍류가 아닌 곳에 풍류가 있다"고 했다. 이

여래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소식을 본격 전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 경전의 본래 이름이 <잡화경(雜華經)>, 즉 허접한 꽃들의 축제였다고 말해준 바 있다. 선재동자는 세상이 하찮다고 생각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난다. 그 선지식 안에 청녀와 승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길을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핏기들 법을 깨닫는다. 이 모든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여래의 이미지, 그 함정

여래의 '이미지'는 여러 꾀단을 낳았다. 그것은 우리의 누추한 삶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의 고통과 불완전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자신을 하찮은 범부로 낙인찍고, 이웃을 한심한 중생으로 생각하며, 내게 단 하나 주어진 삶에 합당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는 않은가. 혜능의 돈교(頓教)는 그 오랜 비판의식, 자기비하의 감옥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네가 바로 여래이다(心即是佛)!" <육조단

I Love Buddha

이정표
용정운(simyon@buddhailust.org)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뭐가 있다구요

천천히 SLOW

10%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니
조심하세요

그쪽 길은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을 찾으세요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얼마나 빨리 간다구요

정지 STOP

너무 오래 달려 왔어요
이제 좀 쉬세요

인생길에도 이런 안내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정운 : 범명 심연(深淵). 불교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현재 <봉은지, <목탁소리> 등에 명성카툰을 연재하고 있다. (주) 교원나라 시스템지원부 디자인기획팀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명성에세이집 <산사일기>를 출간했다. 현재 홈페이지 부다 일러스트 회향(http://www.buddhailust.org)을 운영하고 있다.

경'은 이 한 마디를 하고싶어 지어졌다. <금강경> 5장 구결에서도 그는 신신허 당부한다. "일체 중생이 같은 진성(眞性)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다들 때 하나 묻지 않은 본래 청정(淸淨)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은 우리가 여래와 범부, 너와 나의 구분(分別)로 생긴 이미지들에 결박되지 않을 때 얻어질 것이다. 혜능의 당부가 이어진다. "이미지에 붙잡히지 말고(不住相), 일체처(一切處)에 평등행(平等行)을 행하라!" 그 실천과 더불어 "여래는 이미 여기 와 있

부터 출발한다. "대체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깨달음이 떠나고, 실체가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마침내 의형과 암송만 남은 이 공허한 시대에... <금강경>은 그런 시대에도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선언에 담긴 불멸의 최상승을 이해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 사람은 무한한 축복을 얻는다. 그 축복은 자기 안의 불성과 자기밖의 우주가 일체(一如)로 합쳐지는 우주적 완가에 비길 수 있다. 여기 여래들이 관객처럼 둘러서서

취어줄 수도 없는(不可說) 물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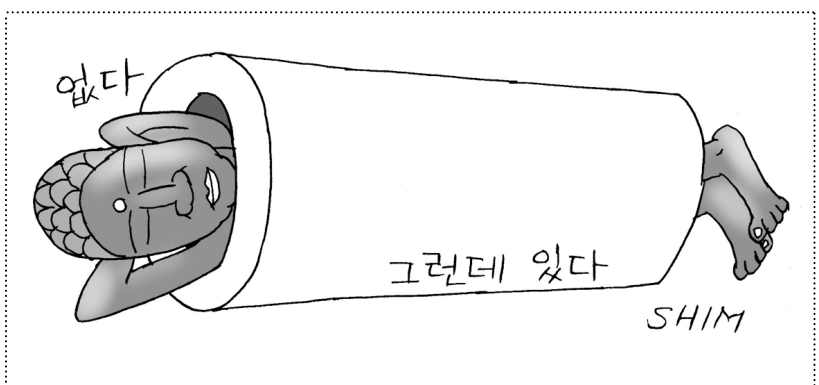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

8장은 이 역설의 소식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 또 남에게 들려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수레에 쏟아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시라고 했다. 왜냐. 모든 부처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9장은 "언더 얻음이 없고, 들어서도 들어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주로 보여준다. 곡명은 소승사과(小乘四果), 즉 "깨달음에 이르는 네 단계"이다. 수다원은 삶의 물길을 거슬러 성선(聖仙) 흐름에 들어선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 수다원은 자신이 성자의 특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자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수다원일 수 없다. 사다함에서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으로 열반의 계단을 오르더라도, 그는 어떤 형태의 아상(我相)도 짓지 않는다. 아라한은 마침내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불견전한 정념과 업을 다 털고 마침내 무욕(無欲)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그는 세상과도 다투지 않고, 자신과도 갈등하지 않는 아라한행의 성자가 되었다. 그 역시 자신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의심한다면, 그의 의식은 '얻음'과 '얻지 않음' 사이에서 자기 갈등을 만들어낸다. 미세한 것이라도 갈등이 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라한, 혹은 '다투지 않는 자'라고 불릴 수 없게 된다.

<금강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래법(如來法)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남긴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삶을 사는데 착수(着手)하는 일이다. 혜능이 구절 구절 당부한다. "입으로만 외지 말고, 그 '얻음 없다'는 법을 행동으로 완성하자(口誦心行得無所得)!"

■한국학중앙연구원



다"는 실상(實相)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5장으로 하여 설법이 끝났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한다. 그래서 설명이 더 불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첫 마디를 못 알아들으면 다음 말도 못 알아듣기 십상이다.

축복 아닌 축복이여
6장은 이 돈교의 설법에 대한 의혹으로

박수를 쳐 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유의해야 한다. 이 축복은 그러나 축복이 아니다. 그 축복을 자부하거나 달콤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자기의식의 함정으로 떨어지고 만다. <금강경>의 나머지는 이 역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7장은 다시금 반복한다. "최고의 축복은 그런 점에서 획득할 수도 없고(不可取), 또